오묘한 표정의 인형, 작품이 되다

도자기로 만든 비스크 인형전
4월 18일까지 '예술공간 집'
전경선·박선주 등 7명 참여
의상·헤어·소품도 직접 제작

박은지 작가 작품

'인형, 예술작품이 되다.'

살아있는 듯한, 오묘한 표정의 인형을 한참 동안 들여다 본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비스크 인형. 도자기를 구워 채색을 하고 의상과 헤어 등도 모두 직접 제작한, '세상에 오직 하나 뿐인 인형'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각각의 인형들을 보고 있으면 환상적인 꿈의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어릴 적 인형 놀이는 많은 이들의 추억이다. 바비 인형 등 대량 생산된 인형들이 인기를 모았고, 최근엔 구체관절인형이 사랑을 받고 있다. 독일 초현실주의 조형미술가 벨머가 구체로 관절인형을 만들어 인체를 표현한 것이 시초인 구체관절인형은 1980년대 일본의 전통인형 작가들이 응용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구체관절인형은 인체의 각 관절 부분을 둥글게 만들고, 이를 서로 결합해 하나의 인형으로 완성한다.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 도자기로 제작된 게 비스크 인형이다.

오는 17일까지 전남여고 앞 예술공간 집(광주시 동구 장동 39-28)에 가면 다양한 비스크 인형을 만날 수 있다. 'D.E.A.R (Doll for Everlastingly Adorable Rising Star)'전은 광주의 '아트통공방'이 비스크 인형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2년 동안 준비, 개최 중인 전시로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획이다.

참여작가는 전경선 공방 대표를 비롯해 안유화·이경아·박은미·박은지·김하림·박선주 작가로 모두 50여점의 인형을 전시 중이다. 작가들은 자신이 제작한 인형과 소품들로 꾸민 자신만의 공간을 통해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 대표는 20년 전 처음 비스크 인형에 빠져들었고, 서울에서 강의를 듣는 등 끊임없이 배워 나갔다. 처음에는 점토 인형으로 시작해 이후 비스크 인형으로 옮겨갔다. 전시장에는 초창기 제작한 사람 크기의 점토 인형도 전시돼 있다.

"제가 그림을 좋아했는데, 인형을 보자마자 미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형을 제작하면 제작할수록 어렵고, 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어요. 자신이 상상한 것들을 인형에 담아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공방은 지난 2017년 열었다. 서울 등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아 고전하기도 했지만 회원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며 자극도 받는다. 강의는 보통 10주(주 1회)간 진행되며 인형 하나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후에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스킬을 쌓고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전 대표는 이번 전시에서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의상을 만든다거나, 각기 다른 흙을 사용해 도자기를 굽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비스크 인형은 가마로 구워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흥미롭고, 그만큼 귀한 작품을 만든다는 기분도 든다.

"인형 제작 뿐 아니라 의상, 헤어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냥 인형만 만들려고 왔다고 다양한 부분을 해야하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면 모두 자신만의 작품에 몰두하곤 하죠. 자기만의 감정을 담은 인형을 만들 수 있고, 특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유화 작가 작품

작가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인체 비례 등을 공부해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조소학원을 다닌 이도 있다.

4년 째 인형을 만들고 있는 안유화 작가는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매력으로 꼽았다. 인터넷으로만 비스크 인형을 접하다 광주에서 열린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인형의 '실물'을 보고 곧바로 배우기 시작했다. 퇴직하고 나면 공방을 차리는 꿈도 갖고 있는 그는 채색 실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다.

대학에서 만화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박은지 작가는 피규어와 아트토이에 관심을 갖다 비스크 인형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번 전시에서 '눈을 감고 있는' 귀여운 인형 시리즈를 선보인 그는 변색되지 않는 인형의 색감을 좋아한다. 옷 만드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리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싶다.

참여자 중엔 박선주 판화작가가 제작한 인형도 눈에 띄었다. 러시아 비스크 인형의 매력에 빠져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그녀의 인형들은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을 담아내온 기존 작업들의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전시장에는 그녀의 에칭 판화 작품도 함께 나왔는데, 평면에 구현된 인물들을 입체감 있는 인형으로 감상하는 즐거움을 준다. 문의 010-9473-477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트통공방' 전경선 대표 작품

광주독립영화관 기획전, 상영작 풍성

13~30일 미개봉작 등 12편
'악몽의 원리'·'세월' 등 상영
오재형·정다운 감독과 대화

광주독립영화관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작 영화와 미개봉 독립영화, 그리고 신작과 앙상블을 이루는 독립영화들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4주년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엄선해 꾸려졌다.

13일에는 기획전 첫번째 섹션으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의 신작 영화 세편을 묶은 '광주단편신작'이 마련된다. 송원재 감독의 '악몽의 원리', 순미경 감독의 '생태교란종', 장광균 감독의 '오늘의 안부' 등 3편이 상영되며,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다. '악몽의 원리'와 '생태교란종'은 앞서 해외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들이다.

영화제에서만 소개된 미개봉 작품들도 상영된다. 장민경 감독의 '세월'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야이기를 담고 있으며, 세월호 8주기를 맞아 16일 무료로 상영된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인 이승윤의 무명 가수 시절 이야기와 영화감독의 성장기를 담고 있는 김아현 감독의 '듣보인간 생존신고'는 24일 상영되며,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이미 개봉한 영화와 신작 영화가 짝을 이룬 특별상영전도 준비됐다.

콜텍 해고 노동자를 그린 다큐멘터리 '재춘언니'와 극영화로 제작된 '휴가'가 연이어 상영된 후 김희정 감독의 진행으로 관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수정 감독의 신작 '평평남녀'와 전작 '파란입이 달린 얼굴'이 함께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김수정 감독과 주연을 맡은 이태경 배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파주 출판도시의 탄생과정을 담은 '위대한 계약 : 파주, 책, 도시'(21일 개봉)는 정다운 감독의 전작인 '이타미 준의 바다'와 30일 특별상영한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29일에는 광주 출신 오재형 감독의 장편 데뷔작 '피아노 프리즘'이 상영 된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오재형 감독은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킨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오 감독의 전작들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보다 낯선' 섹션에 초청 상영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광주독립영화관은 독립영화가 개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영화 교육 및 지역 영화제를 유치하며 지역 독립 영화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전 관람료는 5000원이며 인디앤아트시네마(indieartcinema.com)나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222-189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안부'

'재춘언니'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디어마이광주' 홍보관 오픈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 홍보관이 오프라인에서도 선을 보여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월 오픈한 '디어 마이 광주'(Dear My Gwangju·친애하는 나의 광주)를 오는 24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진>

먼저 시민참여 이벤트 '내가 그리는 아트월'은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조흠, 정승원 작가가 처음 선보이는 콜라보 작품의 도안에 시민들이 손수 색을 입히는 체험형 이벤트다. 알록달록 색을 입혀 작품을 함께 완성시킬 수 있다. 16일 오후 4시에는 현장에서 이조흠, 정승원 작가가 시민과 함께 그리는 드로잉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는 모습, 내가 그린 아트 월에서 작품을 완성해가는 모습 등 인증샷을 디어마이광주에 업로드 한 시민에게는 증정품도 제공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디어마이광주와 선택해 봄'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플랫폼에 가입해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참여만 해도 추첨을 통해 CGV 기프트 카드와 필름 카메라를 받는다. 또한 광주명소 등 콘텐츠를 사진과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 턴테이블도 받을 수 있다.

아트스토어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디어마이광주' 아트스토어에 참여하는 5개 갤러리와 29명 지역작가가 참여해 총 99점 작품을 전시하며 구매도 가능하다. 참여 갤러리는 플랫폼 와사비아,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아트앤아크, 맥시아트, 예술공간 집이다.

한편 디어마이광주는 누구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문화예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 최초 문화예술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이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했다.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디어마이광주'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062-670-74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강하미술관, '바다와 미술'전 참여작가 모집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은 매년 환경과 인간을 주제로 기획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2020 Earth&Museum 지구와 미술관', '2021 Space &Museum 우주와 미술'에 이어 올해는 '2022 Sea&Museum 바다와 미술관'를 기획,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인지하기 힘든,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과 세계'라는 시공간의 관점은 '바다'와 '예술', '예술가들'의 예술작업으로 구현되는 지점과 닮아있다. 이번 전시는 그런 시각을 더 많은 관람객들과 '미술관'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확장시켜 '지구', '우주', '바다', '미지의 공간' '예술'까지로 확장하는 기획이다.

참여작가는 모두 6명을 모집하며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전시는 오는 8월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린다. 국적·지역 및 나이 제한이 없고, 1회 이상 개인전을 개최했던 작가는 지원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